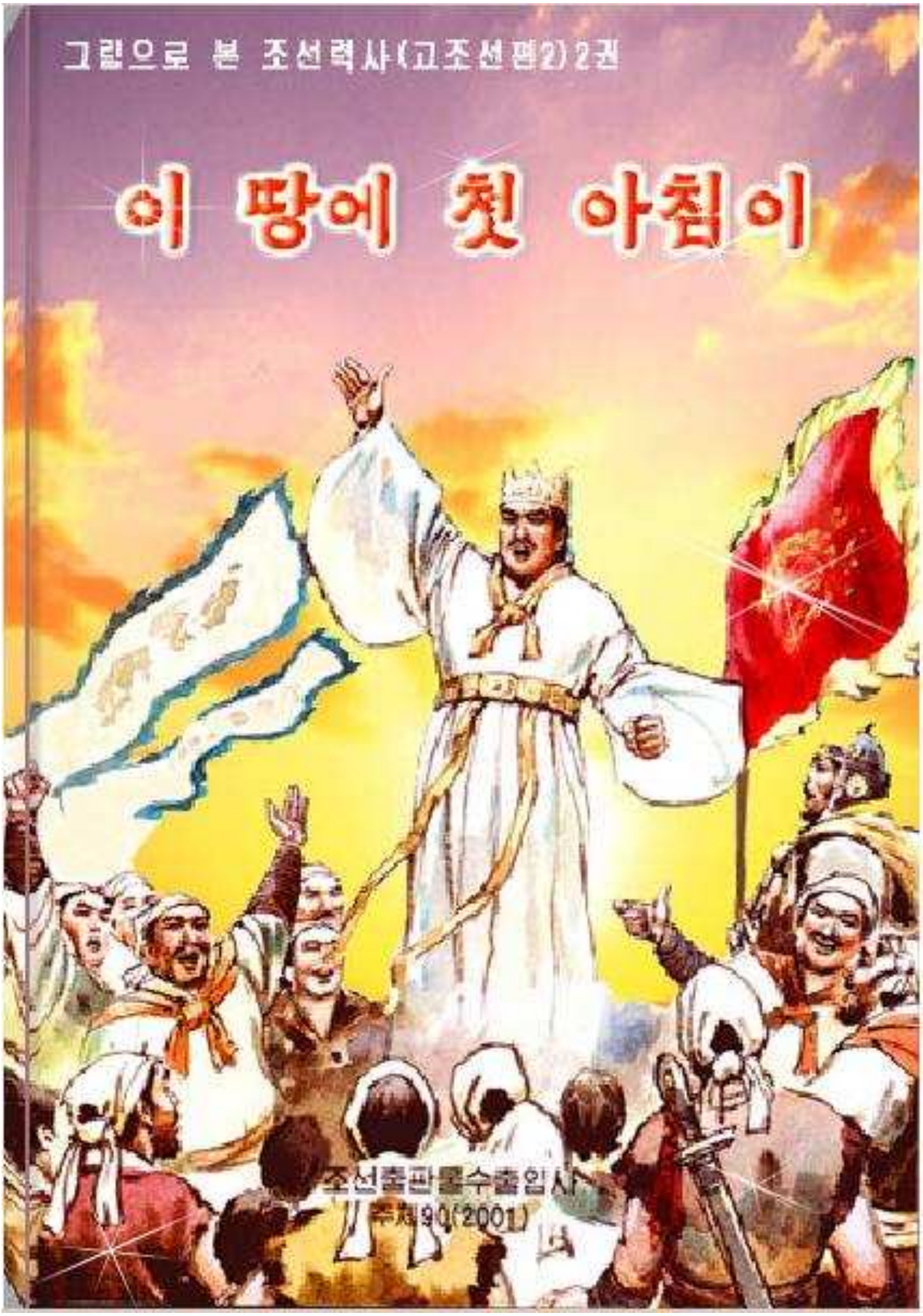
그림으로 본 조선력사(고조선편2) 2권

이 땅에 첫 아침이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주체90(2001)

추장은 박달종족의 소문을 이미 들었기때문에 환웅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환웅은 추장이 권하는 술잔을 들고 사냥군차림을 한 곰종족사람들이 추는 곰춤도 구경하였습니다.

추장은 술이 얼근히 취하자 환웅에게 활솜씨를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환웅은 그의 청을 쾌히 받아들이고 마당으로 나가 활을 잡았습니다.

마침 하늘에 떠돌던 수리개가 날아가는 비둘기를 쏜살같이 덮쳤습니다. 순간 붕 — 하고 날아간 화살이 수리개의 부리를 부셔버렸습니다.

환웅의 신기한 활재주를 본 곰종족사람들은 모두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문을 빠금히 열고 지켜보던 추장의 맏딸도 저도모르게 손벽을 쳤습니다.

다음날 환웅은 부하들과 함께 추장의 안내를 받으며 이곳의 경치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고장이였습니다.

환웅은 추장의 환대를 받으며 그의 집에서 며칠동안 묵게 되였습니다.

추장은 매일 저녁마다 종족두령들을 불러들여 성대한 연회를 차리군 하였습니다.

어느날 밤, 보름달이 얼마나 밝은지 환웅은 자기도 모르게 밤경치에 끌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비늘을 번쩍이며 흘러가는 여울물소리도 유정한 밤풍경이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환웅은 신선한 대기와 아름다운 밤경치에 흠뻑 취했습니다.

문득 가까운 기슭에서 풀피리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곡조가 얼마나 가슴속을 파고드는지 환웅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였습니다.

나무잎들에 가리워진 바위우에 누군가 올라앉아 풀피리를 불고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벌레소리처럼 겨우 들릴락말락 하였습니다.

환웅은 자기도 모르게 발병발병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변에서 자락자락 물을 끼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웅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숨까지 죽였습니다.

환웅의 눈앞에는 너무도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있었습니다. 추장의 아름다운 맏딸이 물속에 반쯤 몸을 잠근채 씻고있었고 바위우에는 그의 어린 하녀가 들릴락말락 풀피리를 불고있었습니다.

환웅은 너무도 당황하여 급히 돌아서려다가 그만 미끄러지는 바람에 인기척을 냈습니다.

추장의 딸은 깜짝 놀라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녀가 일어나 누군가고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환웅은 그 자리에 못박힌듯이 서버렸습니다. 하녀는 그를 보자 손벽을 치며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집으로 황급히 돌아온 환웅은 그날밤을 뜬눈으로 새우며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의 눈앞에서는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 사라질 줄 몰랐습니다.

다음날 환웅은 추장에게 급히 돌아가겠다고 작별인사를 했으나 추장은 무작정 그를 붙러앉혔습니다.

환웅은 그의 청에 못이겨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저녁 추장은 환웅을 자기 방에 불렀습니다.

잠시후에 그의 늙은 안해와 아름답게 단장한 맏딸이 들어왔습니다.

추장은 환웅에게 자기는 이젠 나이도 먹었으나 딸만 셋이 있어 추장자리를 물려줄 근심을 하고있었는데 맞춤한 사위감을 만났으니 딸도 맡고 이 추장자리도 넘겨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환웅은 너무도 당황하여 여러차례 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장은 완강하였습니다.

갑자기 하인이 숨을 헐떡거리며 뛰여들더니 범종족이 쳐들어 온다고 하였습니다.

범종족은 원래 곰종족에서 갈라져나간 종족으로 처음에는 화목하게 지냈으나 새 추장이 올라서면서 사이가 나빠져 자주 습격하군 하였습니다.

추장은 곧 칼과 활을 들고나가 하인이 끌어온 말에 올라탔습니다.

환웅도 부하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나섰습니다.

추장이 말렸지만 그는 앞장에 서서 범종족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곰종족군사들은 적들의 맹렬한 기세에 눌리여 쫓기고있었습니다.

환웅은 앞에서 칼을 휘두르며 적들속에 뛰여들었습니다. 그를

따라 용맹한 부하들도 적들속에 들어가 칼과 창을 휘둘렀습니다.

곰종족의 군사들은 환웅이 싸우는것을 보자 도망치던 발걸음을

돌려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환웅은 달려드는 적들을 내리치고 찌르면서 수레를 탄 범종족 추장이 있는 곳으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범종족추장의 부하들을 단칼에 물리친 환웅은 추장을 찾아내자 칼로 내리쳤습니다.

추장이 죽는것을 본 범종족의 군사들은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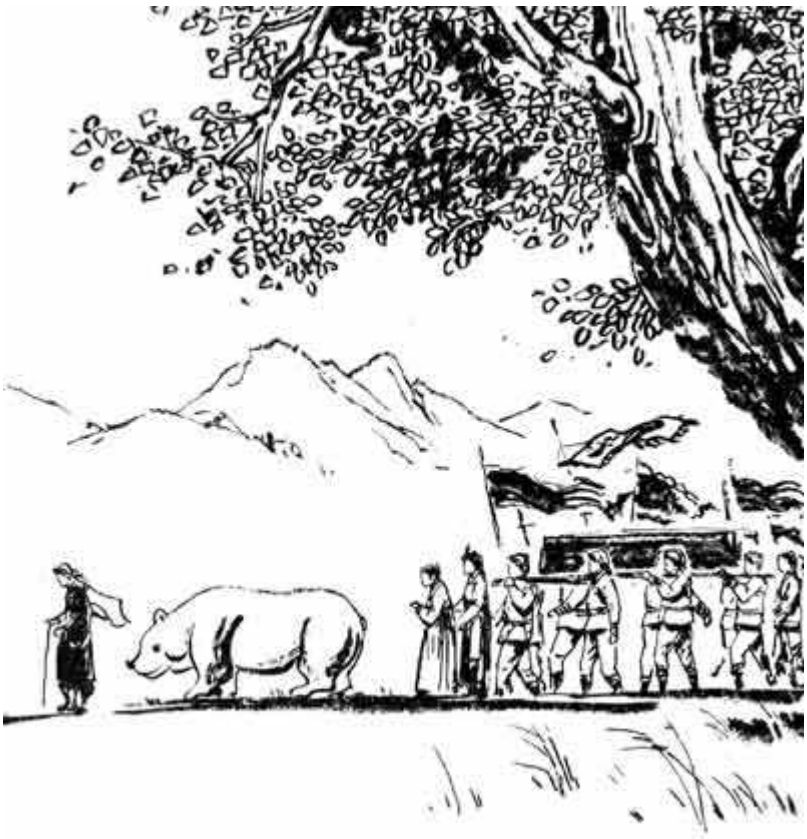
환웅과 곰종족군사들은 적들을 멀리까지 추격하였습니다.

적들을 멀리로 쫓아버리고 돌아와보니 곰종족추장이 화살에 맞아 숨이 지려고 하고있었습니다.

환웅은 깜짝 놀라 말에서 뛰여내렸습니다. 추장의 주위에는 종족의 두령들과 추장의 안해와 딸들이 둘러서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추장은 가까스로 숨을 쉬면서 고개로 환웅을 불렀습니다.

그는 환웅의 손을 꼭 쥐고 뒤일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다음 눈을 감았습니다.



환웅은 추장의 장례식에 참가하였습니다. 장례행렬의 앞장에는 곰이 걸어갔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종족의 두령들은 모두 모여 환웅을 추장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곰종족의 추장이 된 환웅은 추장의 딸 을아와 성대한 잔치를 하였습니다.

환웅은 곰종족에서 마련해준 마차에 안해를 태우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